

中 대규모 판호 승인…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콘텐츠株 부각

1년 6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
올해 중국 게임시장 규모 45조
국내 서버컬쳐 게임사 수혜 전망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중국내 게임 출시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내자(자국산) 84개와 외자 44개 등 128개 게임에 대해 자국내 서비스를 허가하는 판호(版號)를 승인했다. 특히 외자 판호 발급은 1년 6개월 만이다. 국내 게임으로는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A3: 스틸얼라이브(Still Alive)’, ‘제2의 나라’,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 7개가 포함됐다.



넷마블 RPG ‘제2의 나라’ 이미지. /넷마블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판호 개방에 따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국내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국내, 대만 및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했던 게임들이 많이 누적돼 있어 중국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다면 다수의 게임들이 출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3종의 판호를 받은 넷마블, 대만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를 보유 중인 엔씨소프트, ‘오딘’의 카카오게임즈를 수혜주로 꼽았다.

중국 게임사들의 개발력 성장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전과 같이 큰 수혜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게임업체들의 개발 퀄리티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게임업체들의 개발력과 퀄리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획일적인 중국 개발사들의 양산형 게임에 비해 한국 업체들의 다양한 장르와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차별화 포인트를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호 발급에 대해 중국 내 산업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호가 기대를 넘어서 이유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이 아니라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에 보수적이던 중국 당국이 확률형 비즈니스모델(BM)이 강한 한국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제 2의 나라’, ‘A3: 스틸얼라이브’, ‘그랑사가’)까지 외자 판호를 발급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경쟁력이 없던 기존과 달리 한국 게임사의 주력 게임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넷마블과 위메이드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넷마블은 이번에도 3개 게임의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고 향후에도 가장 기대주로 부각 받을 전망”이라며 “위메이드는 미르 IP의

중국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예지 하나증권 연구원은 “외자 판호 발급 재개는 콘텐츠 섹터 전체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과 함께 가장 큰 콘텐츠 시장으로 2023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45조원 이상으로 미국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서버컬쳐 게임 개발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큰 서버컬쳐 시장이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원신’은 2022년 3분기 기준 중국 모바일 매출 순위 6위를 기록했으며, PC콘솔 매출까지 포함한 실제 매출 규모는 더 상위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페이트 앤 그랜드 오더’, ‘가디언 테일즈’와 같은 글로벌 서버컬쳐 게임들에게도 중국은 일본과 미국만큼이나 주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심란한 개미들… 작년 순매수 수익률 -38%

〈상위 10개 종목〉

개인 순매수 종목 1위 ‘삼성전자’
상위종목 모두 투자릿수 하락률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낙폭이 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모두 연초 대비 투자릿수 하락하며 처참한 성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총 16조 703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지난해 개인 투

자자가 삼성전자를 31조 이상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대표 빅테크 종목인 NAVER(네이버), 카카오를 각각 3조 2262억원, 2조 2627억원을 순매수했다. 뒤 이어 ▲SK하이닉스 1조 7164억원 ▲삼성전자우 1조 6926억원 ▲두산에너지 ▲카카오뱅크 1조 330억원 ▲LG전자 7760억원 ▲삼성전기 7286억원 등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에코프로비엠을 지난해 총 8099억원 사모으면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모두 연초 대비 주가가 모두 투자릿

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1년새 주가가 38.72% 빠졌다.

삼성전자는 2021년말 7만 8300원에서 지난해 말 5만 5300원에 장을 마치면서 29.3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성장주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1년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네이버의 주가는 17만 7500원, 카카오는 5만 3100원에 마감하면서 전년 말 대비 각각 53.10%, 52.80% 급락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주가 역시 1년새 58.81% 급락한 가운데 시가총액 순위도 전년(11위) 대비 16단계 하락한 27위로 떨어졌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주가가 ▲SK하이닉스 -42.75% ▲삼성전자우 -

29.07% ▲두산에너지 -24.51% ▲에코프로비엠 -25.57% ▲LG전자 -37.32% ▲삼성전기 -33.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들의 지난해 주식 순매수세도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16조 6799억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 8조 6498억원어치, 총 25조 329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약 86조 6862억원) 대비 3분의 1 이하로 급감한 수준이다.

다만 코스피를 비롯한 주가가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한 만큼 향후 반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월 코스피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저점 통과와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저점 형성 과정에서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영석 기자 ysl@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신년사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사진)은 2일 “어렵다고 편한 방법을 찾기 보다는 돌아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 원칙에 충실한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은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태영그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성과 열정, 도전과 창조, 신뢰와 존중이라는 태영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올해는 태영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정말 새롭다”면서 “지성과 열정, 도전과 창조, 신뢰와 존중이라는 태영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뎠고, 위기와 난관을 성공과 영광으로 바꿔냈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

증권사 신년사 화두는 ‘리스크 관리’

어려운 환경 속 고객 중심 경영 강화

계묘년(癸卯年) 새해 신년사를 통해 본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화두는 ‘리스크 관리’로 꼽혔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2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높은 시장 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를 재정립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불안한 업황을 딛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업의 본질은 리스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사업 부문마다 ‘프론트-미들-백’ 프로세스에서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없는 존속과 성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꼬집었다. 정 사장은 “우리는 자본시장의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로,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객의 자산과 가치를 지키고, 최적의 투자솔루션 제공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하에 비즈(Biz) 중심의 성장 확대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CES 2023’ 관련 저평가 수혜주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라이프시맨틱스·로보티즈
·하이비전시스템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을 최성환 대표이사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 테마와 관련해 저평가 수혜주에 주목하라고 2일 조언했다. 관련주로는 ▲라이프시맨틱스(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티즈(로보틱스) ▲하이비전시스템(메타버스)를 꼽았다.

최성환 리서치알을 대표이사는 “뉴프렉스, 나무가 등의 주가가 이미 CES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위의 3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호흡재활 분야 처방형 디지털 치료제로 확증 임상 계획을 승인받은 국내 1호 제품 ‘레드필 숨튼’을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글

로벌 폐질환 관련 환자 증가로 ‘레드필 숨튼’이 CES에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과 로봇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오는 2024년 실외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상용화로 실적개선이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일개미’ 상용화 시기를 감안했을 때 투자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글로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시장 확대에 로보티즈의 다이나믹셀(로봇 관절용 액츄에이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비전시스템은 CES 2023에서 확장현실(XR) 기기 대거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카메라모듈과 3D센싱 검사장비 수요도 확대가 예상된다. 최 대표는 “애플 XR 기기에는 13개의 카메라 모듈(3D 센싱 3개, 카메라모듈 4개, 시선 감지 6개)이 적용 예정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의 메인 고객사인 LG이노텍 채택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 취임

하나증권은 강성목 신임 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글로벌 등 각 사업 부문별 균형 성장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WM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 자산 관리 전략을 재수립하고, 좋은 상품을 잘 만드는 강한 증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